

# 조선후기 호론(湖論)과 낙론(洛論)의 논쟁과 교유

---

신상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 철학 전공

gusgo@aks.ac.kr

---

- I. 머리말
  - II. 호락(湖洛)논쟁에 관하여
  - III. 호락 간 대립의식의 강화: 최석(崔禘)의 왕래
  - IV. 호락 간 친목과 교유: 홍직필(洪直弼)의 시선을 중심으로
  - V. 맺음말
-

## I. 머리말

호락논쟁은 충청 기반의 호론계(湖論系) 학자들과 서울 및 근기(近畿) 기반의 낙론계(洛論系) 학자들 간에 벌어진 논쟁이다. 호론과 낙론은 모두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와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학문을 계승한 학파이다. ‘호(湖)’는 호서(湖西), 즉 충청 지역을, ‘낙(洛)’은 서울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sup>1</sup>, 호락논쟁이 성립되기 이전에도 율곡학과 내부에서는 해당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다 호락논쟁이 활발히 전개되어 학파 간의 학문적 견해가 분명히 갈라진 뒤로는, 호학(湖學)·낙학(洛學)의 학파를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점차 변화되었다.

우리 학계에서는 이 호락논쟁을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 ‘예송논쟁(禮訟論爭)’과 함께 조선조 유학(儒學)의 3대 논쟁으로 꼽거나, ‘사단칠정논쟁(이하 사칠논쟁)’과 더불어 조선조 성리학(性理學)의 2대 논쟁으로 꼽는다. 조선조에서 축적된, 호락논쟁의 학술적 성과가 사칠논쟁 못지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락논쟁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사칠논쟁에 관한 연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의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sup>2</sup>

표1-국내 학술지 논문 현황

검색조건	검색어	논문 개수	검색조건	검색어	논문 개수
제목	사단칠정	93	주제어	사단칠정	253
	사단칠정논쟁	9		사단칠정논쟁	17
	호락	33		호락	57
	호락논쟁	19		호락논쟁	44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연구과제 “타자에 대한 시선과 대화: 교유와 논쟁을 통해 본 관계의 문화사”의 일환으로 수행됨(AKSR2021-C16).

- 1 ‘낙’은 낙양(洛陽)을 가리킨다. 낙양은 중국 허남성의 도시명인데, 중국 여러 왕조의 수도였기 때문에, 전하여 ‘수도’를 의미하는 일반명사처럼 쓰이게 되었다.
- 2 국내 학술지 현황은 KCI 기준이다(검색일: 2023년 1월 25일).

이러한 연구 동향은 해외 학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는 철학용어사전 중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인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이하 SEP)의 한국철학·한국유학 항목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3</sup> 이 사전에는 2021년 11월까지 한국철학 관련 항목이 없었는데, 2021년 11월 24일에 비로소 ‘한국유학(Korean Confucianism)’ 항목이 생기고, 2022년 1월 14일에는 ‘한국철학(Korean Philosophy)’ 항목이 생겼다.<sup>4</sup> 그런데 이 두 항목의 저자 모두, 호락논쟁보다 사칠논쟁 서술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칠논쟁을 학술적으로 더 가치 있는 논쟁으로 평가하는 듯하다.<sup>5</sup> ‘한국유학’ 항목의 저자는 사칠논쟁에 대해서 “한국의 신유학을 대표하는, 높은 수준의 형이상학적 논쟁”이라고 평하고, 사칠논쟁을 “조선 왕조의 가장 중요한 지성 논쟁”이라고 평한 마이클 칼튼의 말을 인용하였다.<sup>6</sup> 또한, 사칠논쟁으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의

3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는 온라인 사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권위 있는 철학용어사전으로 통용된다. 이 사전은 Stanford University의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소속의 The Metaphysics Research Lab이 소유한 사전으로, 1995년 Edward N. Zalta에 의해 만들어진 이래,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꾸준히 항목을 추가하고 설명을 보완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거의 1,600개의 항목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전은 제작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각각의 항목을 쓰게 하되, 다양한 참고문헌을 상세하게 밝히게 해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사전들 가운데는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사전이 될 수 있었다.

4 한국유학 항목의 저자는 Kevin N. Cawley, 한국철학 항목의 저자는 Halla Kim이다.

5 한국철학 항목에서는 사칠논쟁을 하나의 장(章)으로 다루고, 호락논쟁은 그 장의 말미에 약간 언급하는 것으로 그쳤다. 한국유학 항목에서는 두 논쟁을 모두 하나의 장으로 다루었으나, 분량은 호락논쟁이 사칠논쟁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사칠논쟁’ 장의 낱말 수는 2,112개이고, ‘호락논쟁’은 1,267개이다(검색일: 2023년 1월 25일).

6 Kalton, Michael C. (trans.), 1985, “The Writings of Kwŏn Kūn: The Context and Shape of Early Yi Dynasty Neo-Confucianism,” in de Bary and Haboush 1985a, p. 119.

도덕적 책임감의 강조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 맺었다. 반면, 호락논쟁에 대해서는 “문제는 학술적 의견의 차이가 당파나 지역 간의 적대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한 강재은의 말을 인용하고<sup>7</sup>, “따라서 호락의 학자들은 그들이 소속된 당파에 따라 퇴계나 율곡의 해석에 기울었다. 만약 누군가 자기가 속한 당파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미국의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여 호락논쟁의 학술성보다 당파성을 더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호락논쟁이 사철논쟁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를, SEP ‘한국유학’ 항목의 이와 같은 서술로부터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사철논쟁이 높은 학술 가치를 가지는 순수한 철학 논쟁으로 간주되었던 것에 비해, 호락논쟁은 당파적 대립의 성격이 짙은 정치적 논쟁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호락논쟁을 ‘당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된 순수한 학술논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호락논쟁이 전개되어 각 학파 간의 정체성이 분명해진 뒤로는, 두 학파 간의 대립이 노론(老論) 내의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당파적 대립의 양상으로 변질 혹은 확장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락논쟁이 사철논쟁만큼이나 철학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룬 논쟁이라는 점이다. 논쟁에서 다룬 주제들의 깊이나 넓이로 보았을 때, 호락논쟁은 사철논쟁보다 학술적으로 더욱 진전

7 Kang Jae-eun, 2003 [2006], *The Land of Scholars: Two Thousand Years of Korean Confucianism*, Korea: Hangilsa Publishing, Translated by Suzanne Lee, Paramus, NJ: Homa & Sekey Books, p. 300.

8 김운주(金雲柱)를 대표로 한 호론계 유생 653인은 1799년(정조 23)에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의 작호(爵號)와 시호(諡號)를 청하는 연명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남당이 율곡 이이와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의 적통을 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호락논쟁이 학술논쟁의 성격을 넘어, 노론의 적통을 차지하려는 당파적 대립의 양상으로 흘러갔음을 알 수 있다.

되고 심화된 논쟁이었다.

하지만, 호락논쟁의 이러한 가치는 이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집적된 뒤에야 밝혀질 수 있다. 그리고 호락논쟁에 관한 연구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다룬 한가한 논쟁', '철학적 논쟁의 탈을 쓴, 정치적 권력투쟁'이라는 식의 선입견을 잠시 놓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호락논쟁을 대립 일변도로 파악하는 견해는 이러한 선입견을 형성 혹은 강화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호락 학자들 간의 교유 양상을, 갈등이나 친목 한쪽에 치우침 없이 양면에서 살펴보는 일은, 이러한 선입견의 시비를 검토하고 호락논쟁을 다시 평가하려는 새로운 시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호락 학자들 간의 교유 양상을 조명하되,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친목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 검토에 앞서, 호락논쟁의 철학적 의의를 분석함으로써 이 논쟁이 지닌 무게와 심각성을 가늠해볼 것이다. 호락논쟁의 철학적 의의를 먼저 따져보는 이유는, 본고의 최종 목표가 호락논쟁에 관한 정당한 평가와 적실한 분석의 시급성을 알리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호락논쟁을 '철학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논쟁'으로 이해하거나, 호락 견해의 대립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대립인데도 당파성을 지키느라 고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본고에서 아무리 호락 간 교유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한들, 이러한 설득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I장에서는 먼저 호락논쟁의 핵심쟁점과 그 철학적 의의를 대략 서술할 것이다.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호락 간 대립이 강화되었던 경위를 살펴보고, IV장에서는 이러한 대립에서도 발견되는, 호락 제현(諸賢) 간의 친목과 교유의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 II. 호락(湖洛)논쟁에 관하여

### 1. 호락논쟁의 주체

사칠논쟁이 퇴계학과와 율곡학과와의 분기를 가르는 논쟁이었다면, 호락논쟁은 율곡학과 내부에서 전개된 학술논쟁이었다. 호락논쟁이 율곡학과 내부에서 벌어진 논쟁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 논쟁의 주체와 시기, 핵심쟁점에 관해서는 재고의 필요가 있다. 근대 이후 연구에서는 대체로 호락논쟁의 발단을, 율곡의 4전 제자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 1641~1751) 문하의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1682~1751)과 외암(巍巖) 이간(李柬, 1677~1727)의 논쟁으로 설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sup>9</sup> 즉, 권상하 문하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심성론을 주장하였는데, 충청 지역의 학자들은 대체로 한원진을 지지하여 호론을 형성하고, 이간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 서울 지역의 학자들 예컨대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 등이 낙론을 형성하였다고 보는 것이다.<sup>10</sup> 하지만, 문석윤이 지적하였듯이, 호락논쟁의 시작을 이 두 사람의 논쟁으로 보는 것은 호락논쟁의 형성과정과 부합하지

9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 다카하시 도오루의 『조선 유학사에서 주리파·주기파의 발달』, 현상윤의 『조선유학사』, 이병도의 『한국유학사』, 유명종의 『조선후기 성리학』, 배종호의 『한국유학사』를 검토해보면, 상략(詳略)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이처럼 서술되어 있다.

10 이러한 서술도 정확한 정리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보다 더욱 잘못된 서술들도 보인다. 즉, 이간을 낙론의 창시자로 규정하면서 그를 경기 지역의 학자로 소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SEP의 ‘한국유학’ 항목이다. 이 항목의 저자는 호락논쟁을 주도한 두 학자가 남당 한원진과 외암 이간이라고 하면서 “한원진은 충청도 출신이고 이간은 서울이 있는 경기도 출신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외암’이라는 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간은 충남(忠南) 아산(牙山) 외암리에 살았으며, 그의 묘소 역시 처음에는 아산의 유곡(楡谷)에 마련되었다가, 외암리로 이장되었다. 『梅山集』, 卷34 「贈吏曹判書諡文正公巍巖李先生神道碑銘」 참조.

않는다.<sup>11</sup> 한원진과 이간의 논쟁이 있기 전에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으며, 남당과 외암의 논쟁 당시에도 논쟁의 당사자들이 이 논쟁을 호락 간의 논쟁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락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172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낙론 측에서는 기원(杞園) 어유봉(魚有鳳, 1672~1744)·여호(黎湖) 박필주(朴弼周, 1665~1748)·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가, 호론 측에서는 남당 한원진·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1681~1767)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시기에 들어와서 쟁점은 더욱 명료화되고 학파 간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졌다. 따라서 호락논쟁을 ‘호론과 낙론 간의 직접적인 논쟁’으로 규정한다면, 엄밀한 의미의 호락논쟁은 이 시기 이후의 논쟁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며, 호락논쟁의 주체 역시 이 시기 이후의 인물들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면, 호락논쟁의 주체는 위에서 언급한 인물들을 비롯하여, 후대의 인물 몇 명을 포함하게 되는데, 예컨대 낙론계 학자로는 미호(漢湖) 김원행(金元行, 1702~1772)·근재(近齋) 박윤원(朴胤源, 1734~1799)·노주(老洲) 오희상(吳熙常, 1763~1833)·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 1811~1876)·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 등을, 호론계 학자로는 운평(雲坪) 송능상(宋能相, 1710~1758)·용재(庸齋) 김근행(金謹行, 1713~1784)·어당(岬堂) 이상수(李象秀, 1820~1882), 호산(壺山) 박문호(朴文鎬, 1846~1918)·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 1860~1924) 등을 들 수 있다.

## 2. 호락논쟁의 전개

호락논쟁은 두,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한원진과

---

11 문석윤, 『호락논쟁: 형성과 전개』(동과 서, 2006), 17~19쪽 참조.

이간의 논쟁이 있기 전에도, 김창협과 권상하 등 호락의 학자들이 호락논쟁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을 산발적으로 토론해왔는데, 이때의 토론은 각 학과 내부에서 진행된 경우도 많았다.<sup>12</sup> 이 시기는 내부의 논쟁을 통해 각 학과의 기본입장이 정립되고 호락논쟁의 기초가 생성되던 시기로, 호락논쟁의 맹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한원진과 이간 사이의 논쟁이 본격화되고 여기에 서울·경기 지역의 학자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그제야 비로소 지역에 따른 심성론의 차이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몇 가지 큰 줄기로 정리되었는바, 이 시기를 호락논쟁의 발생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한원진과 이간,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1653~1722)과 정암(正菴) 이현익(李顯益, 1678~1717) 등이 논쟁의 주체로 활약하였다. 이때에도 학과 의식이 정립되는 않았기에 학자의 거주 지역과 철학적 견해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엄밀한 의미의 호락논쟁이 성립된 시기는 낙론의 이재과 호론의 윤봉구 사이의 논쟁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 이르러, 호론과 낙론 사이의 학술적 논쟁이 첨예해졌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간에 학과적 대립의식이 정착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인물은 이재과 윤봉구로, 두 사람은 심(心)에 관한 논변을 담은 서신을 수차례 주고받으며 호락의 논쟁을 주도하였으며, 이 시기 이후 이재가 낙론의 종사(宗師)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재와 윤봉구의 논쟁이 진행되던 시기는 1735년에서 1736년으로, 한원진은 당시에 충청 지역의 석유(碩儒)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

12 호락논쟁의 형성과정과 그 시기 구분에 관해서는 문석윤의 위의 책, 295~298쪽 참조.

13 예컨대 낙론 내부의 논쟁에 관해서는 신상후, 「조선조 洛學의 未發心論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 91~114쪽 참조.

이재는 한원진과 직접 논쟁하지는 않았다. 윤봉구와의 논쟁도 윤봉구가 심설변문(心說辨問)을 보내온 데서 시작되었다. 이재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굳이 논쟁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상대가 서신으로 물어왔을 때 답변을 하였을 뿐인데, 한원진이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기에 이 둘 사이에는 직접적 논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이재의 문인 최석(崔祜)이 두 사람의 사이를 왕래함으로써, 두 사람의 대립이 호락의 학자들 사이에 노출되었고, 특히 한원진이 이재의 학설을 '이단(異端), 즉 불교의 견해'로 평함으로써, 두 학파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요컨대, 이 사건은 호락논쟁이 격화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호락 간의 대립은 학술적 논쟁을 넘어 감정적 갈등이나 정치적 대립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sup>14</sup>

### 3. 호락논쟁의 핵심쟁점과 철학적 의의

최석의 왕래 이후로 호락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양자 사이의 논쟁은 감정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양상을 띠기도 하였으나 호락논쟁의 골자는 어디까지나 심성론(心性論)의 차이, 즉 철학적 견해의 차이에 있었다. 감정적 골이나 정치적 대결의식이 없어진다고 해서 종식될 수 있는 논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호락논쟁의 철학적 쟁점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호락논쟁의 명칭에 주목해보자. 둔점(頓漸)논쟁, 사칠논쟁, 예송논쟁, 명덕주리주기(明德主理主氣)논쟁 등에서 보듯이, 사상사의 논쟁은 대체로 논쟁의 주제로 그 명칭이 정해진다. 그런데 호락논

14 호론과 낙론의 대립이 당파적 대립의 양상으로 흘러간 사정에 관해서는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돌베개, 2003), 74~89쪽 참조.

쟁은 논쟁의 주체로 이름을 붙였다. 어째서인가? 호락논쟁의 주제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호락논쟁의 여러 주제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사람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의 같음과 다름을 따지는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의 문제이다. 호락 제현의 글 중에 가장 빈번히 보이는 내용이 이 주제에 관한 것이고 연구자들이 호락논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다룬 것도 이 주제이다. 그러나 양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핵심쟁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필자가 보기에 호락 논쟁의 핵심쟁점은 ‘개인의 심성(心性)이 태생적 오염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묻는, ‘미발심 선악유무(未發心善惡有無)’의 주제이다.<sup>15</sup> 이 주제는 개인의 마음과 기질의 결합 문제를 다룬다.

주자학에 따르면, 사람은 모두 아무런 결함이나 오염이 없는 온전한 천리(天理)를 본성으로 지니고 태어난다. 그래서 만인의 본성은 같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떠한가? 만인의 마음도 본성처럼 같은가? 사람은 누구나 결함이나 오염이 없는 선한 마음을 타고 나는가? 아니면, 마음은 본성과 달리 태생적으로 기질의 오염에 매몰되어 있는가? 호락의 제현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다. 이를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주자(朱子)가 이에 관한 모순적 언설을 남겼기 때문이고, 둘째, 이 문제가 주자학적 인간 이해의 성격을 좌우하는 골자가 되기 때문이다.

주자학자들에게 있어, 학문과 삶의 목표는 선한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는 인격 즉 성인(聖人)이 되는 것이다. 즉 학문의 지향이 ‘배워서 성인이 됨(學以至聖人)’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이 가능한 이유는, 주자학에서 ‘누구나

---

15 홍직필 역시 호락논쟁의 주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미발심 문제라고 하였다. 『梅山集』, 卷13 「與李龜巖」 참조. 문석윤은 호락논쟁의 핵심쟁점을 인물성동이론으로 설정하면 논쟁의 실제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문석윤, 앞의 책, 20~21쪽 참조.

학문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음[聖人可學]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이론적 근거를 약술하면, “사람이면 누구나 선한 본성을 타고나며, 이것을 실현해낼 통철(洞徹)한 마음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sup>16</sup>

‘성리학(性理學)’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자학은 “누구나 한 점의 오염도 없는 순선(純善)한 천리를 본성으로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는 성인과 보통사람이 같다. 그런데 왜 성인은 본성대로 살고, 보통사람은 그렇지 못한가? 기질(氣質)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질에는 ‘맑고 탁함(淸濁)’과 ‘순수하고 잡박함(粹駁)’의 차이가 있는데, 성인은 오염이 없는 청수한 기질을 타고나고, 보통사람은 탁박한 기질을 타고난다.<sup>17</sup> 탁박한 기질은 본성을 엄폐한다. 컵에 붙은 먼지가 컵 속 맑은 물의 정체를 가리듯이, 탁박한 기질이 선한 본성을 엄폐하여, 그것의 온전한 발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 엄폐의 발생 원인을 주자학에서는 ‘외부 사물과의 접촉’으로 설명한다. 예컨대, 맛있는 음식을 접하면 이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탁박한 기질은 이 생각을 왜곡된 욕망[人欲]과 그릇된 행동[不中節]으로 이끈다.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어서 탈이 난다든가, 옆자리 남의 음식까지 훔쳐먹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주자는 ‘기질의 구애와 인욕의 엄폐’라고 설명한 바 있다.<sup>18</sup>

16 『大學或問』. “唯人之生，乃得其氣之正且通者，而其性為最貴。故其方寸之間，虛靈洞徹，萬理咸備。蓋其所以異於禽獸者，正在於此，而其所以可為堯舜，而能參天地以贊化育者，亦不外焉。”

17 『朱子大全』, 卷15 「經筵講義」. “以生之類而言之，則得其正且通者為人，得其偏且塞者為物。以人之類而言之，則得其清且純者為聖為賢，得其濁且駁者為愚為不肖。其得夫氣之偏且塞而為物者，固無以全其所得以生之全體矣。惟得其正且通而為人，則其所以生之全體無不皆備於我，而其方寸之間，虛靈洞徹，萬理粲然，有以應乎事物之變而不昧，是所謂明德者也。”

18 『大學章句』. “明德者，人之所得乎天而虛靈不昧，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但為氣稟所拘，人欲所蔽，則有時而昏。然其本體之明，則有未嘗息者。”

그렇다면, 외부 사물과 접촉하기 전에는 어떠한가? 왜곡된 욕망이 발생할 계기가 없을 때는 어떠한가? 사물이 내 앞에 이르지 않아 나의 감정이나 사려가 발생하지 않은 때, 즉 미발(未發)의 때에는 인욕에 의한 엄폐가 없지 않은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미발의 때에는 인욕이 없고, 인욕에 의한 본성의 엄폐가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미발시에는 성인과 보통사람 간의 차이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기질에 의한 오염은 태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미발시에 인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질의 오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오염된 기질은 타고난 것이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 호론은 기질에 의한 엄폐가 미발과 이발을 막론하고 상존(常存)한다고 하고, 낙론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호론은 미발시에도 타고난 기질의 오염은 자재(自在)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미발에 선악이 혼재하고 미발시에도 성범(聖凡)의 차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낙론은 구름이 자욱했던 하늘이 일순간에 맑게 갠 수 있듯이, 미발시에는 오염된 기질이 완전히 숨어서 선한 본성과 마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미발시에는 오직 선함이 있을 뿐이고 성범의 미발이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미발심선악유무' 논쟁의 대강이다.

미발시 기질에 대한 상반된 이해는 개인의 마음에 대한 상반된 이해로 이어진다. 기질의 오염이 상존한다고 보는 호론의 인간학에서 개인의 마음은 타고난 기질에 따라 그 광도(光度)가 달라지며 본성과의 거리도 달라진다. 오염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그 순수함이 본성과도 크게 다르다. 이런 인간학에서 심성일치(心性一致)의 경지는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다. 이와 달리, 기질의 오염을 '인욕의 발생 이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낙론의 인간학에서 만인은 본성이 같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같다. 적어도 본연의 마음, 미발의 마음은 그렇다. 보통사람도 성인과 같은 통철한 마음을 소유하기에, 이 마음으로부터 성인 되는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 낙론의 인간학에서 심성일치는 보통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 멀지 않은 경지이다.

성인과 보통사람의 차이가 기질의 청탁수박(淸濁粹駁)에 있다면, 탁박한 기질을 타고난 범인은 그 기질을 청수하게 만들어야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탁박한 기질을 청수하게 만드는 공부를 ‘교기질(矯氣質) 공부’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공부의 주체가 기질일 수는 없다. 탁박한 기질로 어떻게 탁박한 기질을 교정할 수 있겠는가. 주자학에서 모든 공부의 주체는 마음이다. 그런데 만일 마음이 시종 탁박한 기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마음은 이 공부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마음이 탁박한 기질에 가려져 그 마음 안의 본성도 그 탁박함에 매몰되어 있다면, 찬란한 본성이 어느 때고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sup>19</sup>

낙론계 학자들은 ‘배워서 성인이 될 수 있음’의 이상을 이론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본연적으로 선한 마음을 지지하였고, 이 주장의 입론근거로 ‘기본말론(氣本末論)’을 제시하였다.<sup>20</sup> 아래는 낙론계 학자 오희상의 평이다.

호서지방의 여러 선비들은 본성을 논하면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

19 물론 한원진을 비롯한 호론 학자들의 학설도 주자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도 천리와 합일하는 순선한 본성을 논하고, 천하의大本(大本)으로서의 순선한 미발을 말한다. 그러나 호론에서 이것들은 다만 단지(單指)의 논리로써 논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한원진의 성삼층설(性三層說)에서 만물의 동일한 본성, 즉 천리와 동일한 본성은 초형기(超形氣)의 성(性)에 해당하는데 한원진은 이에 대해서 ‘단지(單指)’로써 논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본성은 차별적 기질 속에 떨어진 뒤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현실의 모든 본성은 차별적 기질지성(氣質之性)일 뿐이며, 기(氣)를 빼고 리(理)만 지적해서 말한 뒤에야 순선하고 보편적인 본성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南塘集』, 卷7 「上師門」 참조.

20 기본말론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신상후, 앞의 논문, 116~127쪽 참조.

하고, 미발을 논하면 미발에도 선악의 종자가 있다고 하니, 여러 성현이 주장한 본뜻과 비교해보면 서로 같지 않은 듯하다. 호론의 이론이 잘못되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온전히 ‘기(氣)에 본과 말이 있어서 본은 같고 말은 다름’을 알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매양 지말의 다름을 가지고 근본의 같음을 의심해서, 본성과 미발에 대해 모두 신체의 형기(形氣)를 섞어서 말을 한다. 이럼으로써 ‘현실적 차별성[分殊]’과 ‘근원적 동일성[一原]’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성선(性善)의 뜻이 어둡게 되는 것이니, 참으로 안타깝다.<sup>21</sup>

오회상에 의하면, 호론은 기의 본말 구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心)과 형기를 구분하지 못하며, 이 때문에 기를 차별적인 것으로만 본다. 그래서 본성과 미발을 말하면서도 형기의 국한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인물성이론을 주장하고 미발우선악을 견지한다. 낙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성선의 이념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낙론의 심성론에서 마음은 기의 근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별적 형기에 구애되지 않아 만인에게 동일하며, 본성만큼 선한 존재로 규정된다.

그러나 호론의 입장에서 보면, 기(氣)에 속하는 마음을 설명하면서 개체적 차이를 간과하고 생득적 오염을 부정하는 낙론의 심성론은 이단사설(異端邪說)에 가까운 학설이다. 호론이 보기에 낙론의 심성론은 종신토록 불교를 배척했던 주자의 심성론과 결코 부합될 수 없으며, 그 말류에 가서는 불교가 갖는 폐해를 공유하게 된다. 호론의 이러한 비판의식을 한원진의 다음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老洲集』, 卷9 「答成順之」, “湖中諸公, 論性則謂人物性異, 論未發則謂有淑慝種子, 揆諸聖賢立言本旨, 竊恐便不相似. 而苟究其所以差處, 則專由於不知氣有本末, 而本同末不齊也. 故每每以末之不齊, 疑本之同, 其曰性曰未發, 率皆和形氣而爲言, 分殊一原, 不相通貫, 而性善之旨晦矣, 可勝歎哉.”

지금 사람들은 모두 ‘담일허명(湛一虛明: 차별성이 없이 온전히 맑고 밝음의 기(氣)와 ‘청탁수박의 기’가 본래 동일한 기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침내 미발시의 허명한 기를 순수하고 지선(至善)한 것으로 여기고, 또 반드시 기가 순선(純善)한 뒤에야 본성이 비로소 순선하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기질에 선악이 혼재해있음을 아는 자는 기질을 마음 밖의 물건이라고 여기고, 마음이 기질이 됨을 아는 자는 또 미발의 기질까지 아울러 순선하다고 말하니, 그의도는 본래 성선을 밝히고자 한 것이었으나 도리어 성선을 잡아끌어다가 선악이 혼재한 기질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함을 면치 못한다. 그리하여 기로 본성을 말한 제자백가들의 고루한 학설과 석씨(釋氏)의 본심설(本心說)과 함께 하나의 길로 귀결하고 말았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sup>22</sup>

요컨대, 호락논쟁의 쟁점은 단순히 ‘경전의 문구나 정주(程朱)의 언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호락논쟁의 요점은, 마음을 다만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습관의 경향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사적 마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질과 습관의 한계를 초월하여 보편적 천리와 합치하는 공적 마음’으로 볼 것인가에 있었다. 이는 존재론과 인성론의 오랜 주제로서, 두 견해는 절충이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치열하게 대결할 수밖에 없는 대립적 주장이다. 결국 호론과 낙론의 열띤 논쟁은 일차적으로는 그들의 견지한 심성론이 양립불가능한 평행적 이론이라는 데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22 『南塘集』, 卷32 「書玉溪與黎湖寒泉往復書後」, “今人盖皆不知湛一虛明之氣與清濁粹駁之氣, 本只是一氣, 故遂以未發虛明之氣爲純粹至善底物事, 而又必謂氣純善然後性方純善, 其知氣質之有善惡者, 輒斥氣質以爲心外之物事, 知其心之爲氣質者, 又并與未發氣質而謂之純善, 其意本欲明性善, 而反不免於挽性善而墮善惡氣質之科, 與諸子以氣言性之陋, 釋氏本心之學, 并歸一轍, 豈不可惜哉!”

### Ⅲ. 호락 간 대립의식의 강화: 최석(崔祐)의 왕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철학적 논쟁은 한쪽이 자신의 소견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로 귀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갖는 논쟁이었다. 각 학파의 철학적 견해가 이렇듯 화해할 수 없는 것이었던 데다가 이재에 대한 한원진의 비판이 최석(崔祐)에 의해 널리 알려지면서 두 학파 간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이 장에서는 그 계기가 된 최석 내왕의 경위를 살펴보겠다.

1746년(영조 22) 8월, 도암 이재의 문인 숙고(叔固) 최석(崔祐)은 호락의 심성론을 하나로 귀결시키겠다는 웅대한 목표를 가지고 남당으로 가서 한원진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별 소득 없이 돌아와 이 일을 스승 이재에게 보고하였고, 자초지종을 들은 이재는 다음의 시를 써서 자신의 소회를 피력하였다.

〈최생(崔生)-석(祐)- 숙고(叔固)가 남당에서 돌아와, 그곳에서 강설한 내용을 상세히 말하기에 이를 듣고서 짓다 -남당은 장령 한원진이 사는 곳이다-〉<sup>23</sup>

德昭豪傑士	덕소(한원진의 字)는 호걸의 선비로
往昔學于海	예전에 바닷가 <sup>24</sup> 에서 일어났네
自有累世好	원래 대대로 교분이 있었고
幸又生間歲	다행히 몇 해 차이로 태어나기도 했네
到老不一識	그런데도 늙도록 한번을 만나지 못했으니
意見知相戾	의견이 서로 어긋남을 알아서였네

23 『陶菴集』, 卷4 「崔生【祐】叔固歸自南塘, 盛道講說, 聽之有作. 【南塘即韓掌令元震所居】」.

24 한원진의 고향인 남당리를 가리킨다.

秋間崔叔固	가을 무렵 최숙고가
過我告南逝	나에게 들러 남쪽으로 간다고 하였네
聞是雄辯人	“듣자니 이 사람은 웅변이 있는 사람인데
子將何以說	그대는 무슨 말로 설득하려 하는가?
欲令大議論	중대한 의론을
歸一立談際	짧게 담소하는 사이에 하나로 귀결되게 하려는 것이겠지
知君大力量	내 그대의 큰 역량을 알고
且恃明見解	또 밝은 견해를 믿지만
然亦不易事	이는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니
自信或太銳	너무 자신하면 지나치게 날카로워진다네
徧交諸君子	그래도 여러 군자와 두루 사귀면
資益亦不細	도움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네”
留連數月歸	숙고가 수개월을 머물다가 돌아와서
問疾復來稅	문병 차 다시 방문해주었네
初學於先進	“초학자는 선배에게
推遜乃其例	공손하게 하는 것이 법도이니
得無或失言	혹 실언을 하지는 않았는가
旨意願深諦	그 뜻을 잘 살피기를 바라네”
蓋聞心性間	숙고에게 들어보니 그는 심과 성에 있어서
過占氣分界	기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偏全作本然	기질에 의해 치우친 성을 본연지성으로 삼고
氣質當心體	기질을 심의 본체에 해당시켰다고 하네
難將一寸莛	한 치의 풀대를 가지고
敵得千勻勢	천균의 기세를 대적하기는 어려우니
和者僅一二	화합하는 것은 겨우 한둘이고
不合難數計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루 다 세기가 어렵네
千萬極不是	천만부당 전혀 옳지 않다고 하신

栗翁說得快	율옹의 말씀이 명쾌하네 <sup>25</sup>
外此宜未敢	이외에는 감히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니
恐亦坐穴厲	너무 과격해질까 염려되어서라네
義理天下公	의리는 천하의 공적인 것이니
偏見難拘制	치우친 식견으로는 남을 구속하기 어렵네
此事非可法	이 일은 본받을만한 것이 아니니
宜作反身戒	마땅히 반성하는 경계로 삼아야 하네
濯舊以來新	옛 견해를 깨끗이 씻어버려 새로운 생각이 나오게 함에 <sup>26</sup>
永言願自勵	스스로 힘쓰기를 길이 바라노라
況聞狀師德	하물며 그가 스승의 행장을 쓰면서
以是爲關樞	이것을 관건으로 삼았다고 하니 <sup>27</sup>

25 율옹은 율곡 이이를 말한다. 이이는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에게 답한 편지에서, 미발시에 불선(不善)의 싹이 있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논박 바 있다.

『栗谷全書』, 卷9 「答成浩原」. “미발의 체에도 말할 만한 선악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 지난번 편지에서 ‘미발시에도 불선의 싹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다시 생각해보에 이 말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우리 형이 대본(大本)을 알지 못하는 병통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발이란 성(性)의 본연이며 태극의 묘함으로, 중(中)이며 대본(大本)이니, 여기에도 불선의 싹이 있다면 성인만 대본을 소유하고 보통사람에게는 대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자의 성선설이 공허한 고담(高談)이 되어서 사람이 요순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자사는 어찌하여 ‘군자의 희로애락의 미발을 중(中)이라고 한다.’라 하지 않고, ‘희로애락의 미발을 중(中)이라고 한다.’고 넓게 말했겠습니까. 천만부당 옳지 않으니, 그 의견을 속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未發之體, 亦有善惡之可言者, 甚誤. [...] 昨書以爲未發之時, 亦有不善之萌者, 更思之, 尤見其大錯, 吾兄之不識大本, 病根正在於此. 未發者, 性之本然也, 太極之妙也, 中也, 大本也, 於此亦有不善之萌, 則是聖人獨有大本, 而常人無大本也. 孟子性善之說, 爲駕虛之高談, 而人不可以爲堯舜矣, 子思何不曰君子之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而乃泛言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耶? 千萬不是, 切宜速改.]”

26 이 말은 횡거(橫渠) 장재(張載)의 말로, “의리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옛 견해를 깨끗이 씻어 버려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義理有疑, 則濯去舊見, 以來新意.]”라고 하였다. 『近思錄』, 卷3 「致知」 참조.

27 한원진이 지은 수암 권상하의 행장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행장에 다음과 같은

蓋於本說外 아마도 스승의 본래 말씀 외에  
 推演謂善繼 더 부연하는 것을 스승을 잘 계승하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라  
 尤菴及遂翁 우암과 수옹은  
 傳授有次第 전수함에 차례가 있었으니  
 自誤還小事 자신을 그르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지만  
 貽累豈不大 스승에게 누를 끼침은 어찌 큰일이 아니겠는가  
 吾道本衰敗 우리의 도가 본래 쇠퇴하고 있어  
 論議又不齊 의론도 같지 않은 것이라네”  
 客去私自識 손님이 가고 홀로 기록하노니  
 蓋亦憂衰世 이 또한 쇠락한 세상을 걱정해서라네

이재의 이 시는, 한원진의 학설에 대한 비판을 정중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한원진이 스승 권상하의 행장을 지으면서 스승이 자신과 같은 학설을 견지했다고 하고, 또 이것을 이이에서 송시열로, 송시열에서 권상하로 전수된 요결이라고 한 데에 대하여 더욱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재의

---

말이 보인다. “오상(五常)의 성(性)의 인물동이(人物同異)를 논하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성과 물성은 리(理)로 말하면 모두 같고 형기를 품수받은 것으로 말하면 모두 같지는 못하다. 인의예지는 바로 『주역』의 성지자성(成之者性)과 같다. 그러므로 오행에 있어서 이미 같지 못해서, 각각 그중의 하나를 온전히 소유할 뿐이니, 그렇다면 인물(人物)이 품수받음의 다름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미발시 기질지성 유무를 논하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人)과 물(物)이 태어남에 기(氣)로서 형체를 이루고 리(理) 또한 거기에 부여되니, 부여받은 리만을 가리키면 본연지성이라고 하고, 형체를 이루는 기를 아울러 가리키면 기질지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기질지성을 소유하는 것이요, 때에 따라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其論五常之性人物同異, 則曰, 人物之性, 以理言則皆同, 以其形氣所稟而言, 則不能皆同. 仁義禮智, 猶是成之者性, 故其在五行, 已不能同而各專其一, 則在人物所稟之不同, 從可知矣. 其論未發之前氣質之性有無, 則曰, 人物之生, 氣以成形, 理亦賦焉, 專指所賦之理而謂之本然之性, 兼指成形之氣而謂之氣質之性, 故人自有生之初, 便已有氣質之性, 非可以隨時有無者也.]’ 『南塘集』, 卷34 「寒水齋權先生行狀」 참조.

이 말을 통해 우리는, 호락논쟁의 심화에 ‘율곡과 우암의 적전(嫡傳)’을 둘러싼 두 학파 간의 대결이 그 배경으로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이 시를 지은 뒤 곧 별세하였다. 두 사람이 직접 논쟁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한원진은 이 시를 받은 뒤 곧바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문(跋文)의 형식을 빌려 피력하였다. 아래는 그 발문이다.

### 〈한천(寒泉)의 시의 뒤에 쓰다〉

이상<sup>28</sup>은 한천(이재의 號)의 시이다. 병인년(1746, 영조 22) 8월 모일에, 한천의 문인 최석이 이곳을 내방하여 나에게 심성설을 물었는데, 내가 병으로 인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최석이 돌아가서 그 스승을 뵈니, 스승이 이 시를 지어 그 일을 기록하였는데, 같은 해 10월에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이 시가 생전 마지막 작품인 셈이다.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시를 써서 논평하는 것이 진실로 무방하나, 그가 논한 심성설을 보니, 사람의 성선이 금수와 다르다는 것, 성인의 마음이 보통사람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유학과 불교의 변별이 오로지 심성의 분별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애석하도다! 그의 강설이 시작되자마자 상세히 말하기도 전에 이 지경에 이름이여!

시 가운데 율곡·우암·수암 세 선생을 들어 말한 것은, 세 선생의 문집이 모두 있으니, 독자들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인바,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깊게 변론할 것이 없다. 그런데 시 가운데 ‘늡도록 한번도 만나지 못함’을 한스러워하면서 이를 ‘의견이 서로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의견이 같지 않은 부분이야말로 참으로 강론하기가 좋으니, 이 때문에 주자가 육象山(陸象山, 名 九淵)과 그 학문이 같지 않은데도 아호(鵝湖)에서 만나기를 기약한 것이요, 처음에 장남헌(張南軒, 名 栻)과 심설(心說)이

---

28 위에서 이재의 시를 인용하였다.

같지 않았는데도 몸소 장사(長沙)에 가서 3일 동안 논변을 했던 것이니, 내 비록 고루하나 어찌 이러한 의리를 모르겠는가. 예전에 한천이 죽현(竹峴) 이상서(李尙書, 名 秉常)의 집에 방문했는데, 여기와의 거리가 겨우 한 집 건너였다. 그런데 내가 병으로 인하여 가서 뵙지 못했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다. 시를 받은 다음날에 그 아래에 쓰니, 정묘년(1747, 영조23) 2월 모일이다. 양곡(陽谷)의 병든 늙은이가 기록하노라.<sup>29</sup>

이 발문에서 한원진은 이재의 심성설을 언급하면서 ‘유학과 불교의 변별을 알지 못한다’고 비판함으로써 이재의 학설이 불교와 유사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또 이이·송시열·권상하의 도통이 자신에게 있음을 넉넉히 표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생전에 만나서 함께 토론하지 못한 책임을 이재에게 돌림으로써 자기 학설의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반면 최석은 “늙도록 한번도 만나지 못함을 한스러워 했다.”는 한원진의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다.

선사(先師) 도암 선생이 예전에 호서를 가면서 남당을 방문하지 않고 돌아온 것은 실로 뜻이 있었다. [...] 선사께서 남당을 방문하지 않았던 뜻은 실로 그를 깊이 미워하고 통렬히 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sup>30</sup> [...] 남당을 방문하지

29 『南塘集』, 卷32 「題寒泉詩後」. “右寒泉詩也. 丙寅八月日, 寒泉門人崔祐來訪此中, 問余以心性之說, 余以病不能酬酢. 歸見其師, 師作此詩以記之. 而是年十月, 病不起, 蓋絕筆也. 意見不合, 則作詩論評, 固無害也. 然觀其所論心性之說, 則蓋不知人之性善與禽獸不同, 聖人之心與衆人之心不同, 惜乎! 其講說伊始, 未及反復而止於此也. 詩中又舉栗谷尤菴遂菴三先生爲言者, 三先生文集俱在, 讀者自知之, 此不必深辨也. 詩中又以到老不一識爲恨, 而謂由於意見之相戾, 非余意也. 意見不同處, 正好講論, 故朱子與陸象山其學不同, 而期會於鵝湖, 始與張南軒心說不同, 而躬往長沙, 三日論辨, 余雖固陋, 豈不知此義也? 頃年, 寒泉來竹峴李尙書家, 距此僅一舍地, 而余以病不得往見, 此則余之過也. 得詩之翌日, 書其下, 丁卯二月日也. 陽谷病夫識.”

30 이 말은 『맹자』 「진심 하(盡心下)」의 “내 문 앞을 지나면서 내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 서운해하지 않는 자는 오직 향원(鄉原)일 것이다. 향원은 덕(德)의 적(賊)이다.”

않은 것은 실로 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니, 일찍이 늙도록 한번도 만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한 적이 없는 것인바, 그 말이 완곡하면서도 그 뜻이 깊은 것이다. 남당은 선사의 시의 뜻을 살피지 않고, 이렇게 말하여 스스로 반성할 줄을 몰랐으니, 그가 스스로 살피지 않음을 더욱 볼 수 있다.<sup>31</sup>

한원진의 발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발문 하나를 더 썼는데, 그 내용은 이전의 발문보다 더 과격한 것이었다.

최생(崔生)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옹(尤翁, 송시열) 또한 개와 소와 사람의 같지 않은 본성을 기질지성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우옹의 말씀은 그대의 말과 같지 않네.”라고 하였다. 최생이 돌아간 뒤에 우옹의 말씀을 보니, 거기에 “맹자는 입만 열면 성선을 말씀하셨으니, 이는 모두 본연지성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sup>32</sup> ‘입만 열면[開口]’이라는 두 글자에서 곧 ‘이 장<sup>33</sup> 또한 본연지성을 말한 것에 속해서 성선 외에는 다른 설이 없음’을

---

라는 공자의 말에 대한 주자의 주석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문 앞을 지나면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친히 찾아오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 것이니, 깊이 미워하고 통렬히 끊으신 것이다.[過門不入而不恨之, 以其不見親就爲幸, 深惡而痛絕之也.]”

- 31 『泉門侯百錄』, “先師陶菴先生頃年往湖時, 不訪南塘而歸者, 實有意. [...] 先師不訪南塘之意, 實出於深惡而痛絕之也. [...] 不訪者實無願見之心, 未嘗以到老不一識爲恨, 其辭婉而其意深矣. 南塘不察先師之詩意, 有此云云, 而不知所以自反, 多見其不自量也.” 『泉門侯百錄』은 최석이 엮은 책으로, 이재의 시와 한원진의 발문 2편을 싣고, 그 뒤에 한원진의 발문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자신의 글을 실었다.
- 32 『宋子大全』, 卷131 「看書雜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이 두 개념은 비록 정자와 장자에서 시작되었으나, 공자의 ‘성상근(性相近)’ 세 글자가 이미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겸하여 말씀한 것이고, 맹자는 입만 열면 성선을 말씀하였으니 이는 모두 본연지성을 말한 것이지만, ‘소의 성’과 ‘개의 성’을 말한 것은 또한 기질지성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다.[本然之性, 氣質之性, 此二名雖始於程張, 然孔子性相近三字已是兼本然氣質而言也, 孟子開口便說性善, 是皆說本然, 然其曰牛之性馬之性則亦以氣質而言也.]”
- 33 “그렇다면 개의 성이 소의 성과 같으며, 소의 성이 사람의 성과 같은 말인가?[然則犬之性, 猶牛之性, 牛之性, 猶人之性與?]”라는 맹자의 말이 나오는 『맹자』 「고자 상」

볼 수 있다. 이 장은 바로 고자가 미혹되고 잘못된 근본이고 맹자가 열어 보여준 요체인데, 되려 맹자의 말씀을 기질지성이라고 여긴다면, 『맹자』 일곱 편의 뜻에 다시는 성선을 말한 부분이 없을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고자의 설을 비판한다면 함께 목욕하면서 나체인 것을 비판하는 데에 가깝지 않겠는가. 정자 또한 어째서 맹자의 성선설을 ‘성만 논하고 기(氣)를 논하지 않아서 구비되지 못한 것’으로 삼았겠는가.<sup>34</sup>

우암의 말씀 하단에 ‘개와 소의 성은 또한 기질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최생이 의거한 것이 오로지 이 한 구에 있는데, 이는 우옹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우옹의 뜻은, ‘맹자가 비록 기질을 말하지 않았으나 개·소·사람의 성이 같지 않음을 말씀한 부분은 바로 기질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맹자가 구비하지 못한 것을 보충하려는 뜻이지, 개·소·사람의 성이 모두 본연지성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다.

본연 두 글자는 일원(一原, 동일한 근원) 상에 나아가 말한 것이 있고, 이체(異體, 서로 다른 개체) 상에 나아가 말한 것이 있다. 일원으로 말하면, 만물이 똑같이 태극을 갖춘 것은 본연이고, 만물이 각각 그 한 가지 성을 오로지 간직함은 기질이다. 이체로 말하면, 개끼리 같고 소끼리 같고 사람끼리 같은 것은 본연이고, 개끼리 다르고 소끼리 다르고 사람끼리 다른 것은 기질이다.

맹자가 성선을 말씀하심은 또한 이체에 나아가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같고 금수를 아울러 말하면 같지 않은 것이니, 다만 이장의 뜻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이 얼마 안 되니 보통사람들은 이것을 버리고 군자는 이것을 보존한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군자가

3장을 말한다.

- 34 『二程遺書』, 卷6. “성만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구비되지 못하고, 기만 논하고 성을 논하면 밝지 못하다.[論性不論氣, 不備. 論氣不論性, 不明.]” 이에 대하여 주자는 “기만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음은 순자가 성악을 말하고 양자가 선악혼재를 말한 것이 이것이고, 성만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음은 맹자가 성선을 말한 것이 이것이다.[論氣不論性, 荀子言性惡、揚子言善惡混是也. 論性不論氣, 孟子言性善是也.]”라고 하였다. 『朱子語類』, 卷59 「孟子九 告子上」 참조.

보존하는 것이 과연 본연지성이 아니라 기질지성이겠는가.

『대학혹문』에 말하기를 “오직 사람이 태어남에 기의 바르고 통한 것을 얻어서 그 본성이 가장 귀하다. 그러므로 방촌(마음)의 사이에 허렁통철해서 만리(萬理)를 모두 구비하니, 금수와 다른 까닭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명덕(明德)은 사람이 갖추고 있는 가장 귀한 본성인데, 이것 역시 과연 본연지성이 아니고 기질지성이겠는가.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리와 기는 마땅히 이간(離看, 분리시켜서 봄)하고 합간(合看, 합해서 봄)해야 한다.”라고 하셨으니, 이 한 말씀이 실로 리기를 궁구하는 요결이다. 이간하면 리가 모두 같음을 보고-일원이다.- 합간하면 리가 같지 않음을 보니-이체이다.- 합간처에서 또 이간하고-인성과 물성은 같지 않는데 인성은 모두 선함- 이간처에서 또 합간하면-인성은 모두 선한데 기질이 같지 않음- 같음 가운데서 다름을 보고 다름 가운데서 같음을 보아서, 본성을 논하고 기를 논함이 분명하고 철저해서 장애가 없을 것이다.

한천의 문하는 이러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이 금수와 다른 것을 말할 적에 모두 기질지성이라 하고 본연지성은 아니라고 하니, 이는 사람과 금수의 분별을 알지 못하여 석씨의 견해로 빠진 것이다. 작은 오류가 아니므로 다시 말하노라.<sup>35</sup>

35 『南塘集』, 卷32 「題寒泉詩後[又書]」. “崔生謂余曰, 尤翁亦以犬牛人不同之性, 爲氣質之性. 余曰, 尤翁說則不如君言也. 崔生既去, 取見尤翁說, 其說曰, 孟子開口便說性善, 是皆說本然. 開口二字, 便見此章亦在其中, 而性善之外, 無它說也. 此章乃是告子迷謬之根本, 孟子開示之切要者, 而乃以孟子之言, 爲氣質之性, 則是七篇之指, 更無言性善處, 而以此而辨告子之說, 不幾於同浴而譏裸裎乎? 程子亦何以孟子爲論性不論氣不備乎? 尤翁說下段言犬牛之性, 亦以氣質言也, 崔生所抵賴者, 專在於此一句, 而全不識尤翁之意. 尤翁之意以爲孟子雖不言氣質, 其言犬牛人不同處, 亦以氣質言也, 蓋以追補孟子不備之意也, 非謂犬牛人之性, 皆非本然也. 蓋本然二字, 有就一原上言者, 有就異體上言者, 以一原言之, 則萬物同具太極, 是本然也, 而萬物各一其性者氣質也, 以異體言之, 則犬與犬同, 牛與牛同, 人與人同, 是本然也, 而犬與犬不同, 牛與牛不同, 人與人不同者, 氣質也. 孟子之言性善, 亦只就異體而言, 故在人則同而并禽獸而言則不同也. 非獨此章之指爲然, 其曰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君子所存者, 果是氣質而非本然也耶? 大學或問曰, 惟人之生, 乃得其氣之正通者而其性爲最貴, 故其方寸之間, 虛靈洞澈, 萬理咸備, 蓋其所以異於禽獸者在此, 明德所

이 발문에서 한원진은 자신의 성설(性說) 즉 성삼층설(性三層說)<sup>36</sup>의 내용을 상론하면서 경전과 정주(程朱)의 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연 (일원)	[	일원: 만물에 동일한 태극(太極) → 초형기(超形氣)의 성	
		이체: 종(種)끼리 같은 성	→ 인기질(因氣質)의 성(=본연지성)
기질 (이체)	[	일원: 종끼리 같은 성	→ 인기질의 성(=본연지성)
		이체: 종 안에서도 개체 간 다른 성	→ 잡기질(雜氣質)의 성(=기질지성)

낙론 심성론의 견지에서 위와 같은 성론은 ‘성즉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이론이고, 호론의 견지에서 위의 성론은 만물일체의 이념과 만물일체의 현실을 모두 간과하지 않는 ‘구비된 이론’이다. 이 두 견지는 절충될 수 없는데, 한원진이 위의 발문에서 이를 명시했던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서 한원진은 송시열의 말을 논제로 삼아 자신의 이론을 지지하게 만듦으로써 이이에서 권상하로 이어지는 도통이 자신에게 있음

---

具最貴之性，果亦氣質而非本然耶？朱子之言曰，理氣當離合看，只此一言，實是窮理氣之要訣也。離看則見理之皆同，【一原】合看則見理之不同，【異體】合看處又離看，【人物不同而人性皆善】離看處又合看，【人性皆善而氣質不同】則同中見其異，異中見其同，而論性論氣，玲瓏穿穴，無有窒礙矣。泉門不知此意，故凡言人性之異於禽獸者，皆以爲氣質而非本然，則是不知人獸之別，而陷於釋氏之見矣，非細誤也，故又言之。”

36 성삼층설은 성을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 한원진의 본성 이론이다. 한원진은 인과 물이 같은 초형기(超形氣)의 성, 인과 물이 다르지만 중별로는 같은 인기질(因氣質)의 성, 같은 종 안에서도 개체 간에 서로 다른 잡기질(雜氣質)의 성으로, 성을 구분하였으며, 성은 리(理)가 기질 속에 떨어진 뒤에 말해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근거로, 현실에 존재하는 성은 인기질 이하의 성이라고 보았다. 초형기의 성은 기질 안에 떨어져 있는 성만을 따로 발라내어 가리켰을 때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개념으로, 실존하는 성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성에 불과하다.

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최석을 비롯한 낙론계 학자들은 이제 도통의 적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첫 번째 발문과는 다르게 이 글에서는 한원진이 이재 문하의 심성론과 불교 사이의 유사성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발문에서 그는 다만 “이재는 유학과 불교의 변별을 모른다.”고 했을 뿐인데, 여기에서는 “이재 문하의 학설이 불교의 견해로 빠져버렸다.”고 하여 과격한 언설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상대의 비판에 맞설 적에는 그와 유사한 논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기에 이제 최석을 비롯한 이재의 문인들과 주변 낙론계의 학자들 또한, 한원진을 비롯한 호론계 학자들의 학설을 비판할 적에 과격한 논조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써 호락논쟁은 학파적 대결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그 안에 심리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이 포함되게 되었다.

#### IV. 호락 간 친목과 교유: 홍직필(洪直弼)의 시선을 중심으로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호락 간의 철학적 논쟁은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었고, 최석의 왕래 이후로 논쟁은 더욱 격화되어 갈등의 골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어 19세기 무렵엔 양자 간의 교유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현손 한정당(閑靜堂) 송문흠(宋文欽, 1710~1752)은 몽오(夢梧) 김중수(金鍾秀, 1728~1799)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성리에 관한 논쟁이 장차 현황(玄黃)의 지경이 되게 되었으니, 예로부터

사문(斯文)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성현의 성리설은 자신의 심신에 보탬이 되려 한 것인데, 지금 사람들이 본성을 논함은 입에 상쾌함을 취하여, 기뻐하고 성내고 교만하고 인색함이 모두 여기에서 일어나니, 비록 공허한 말에서 터득함이 있더라도 자신의 실제 덕을 해치고 파괴함이 많습니다.<sup>37</sup>

현황은 『주역(周易)』 곤괘(坤卦) 상륙(上六) 효사에 보이는 말로, 싸움으로 인해 검고 누런 피가 사방에 뿌려진 모습을 가리킨다. 송문흠은 당시의 호락논쟁을 현황의 지경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석의 왕래 이후, 즉 호락논쟁이 격렬해진 뒤로는 호락 제현들 사이의 교류나 친목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까? 호론과 낙론은 철저하게 대립 일변도로 치달리게 되었을까?

지금까지의 연구는 호락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음에 집중하여 그 갈등만을 주로 부각해왔다. 예컨대 호론계 학자 윤봉구가 송시열을 모신 화양서원(華陽書院)의 묘정비문(廟庭碑文)을 지었는데, 화양서원의 원유(院儒)들이 이것으로 비를 세우려고 하자 당시 서원의 원장이었던 낙론계 학자 김원행이 이를 저지한 일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락 제현들의 관계를 단순히 갈등 관계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들이 교류한 사례들 역시 발견되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문서의 청탁이다. 행장(行狀)·묘지명(墓誌銘)과 같은 전기류의 글이나, 문집의 서문(序文)·발문(跋文)은 고인의 덕과 학문을 기리는 것이자 고인의 명망과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아무에게나 글을 청탁하지 않는다. 문집을 간행하는 후손이나 제자들은 명성 높은 학자의 글을 받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어지간해서는 다른 당파의 사람들에게 글을

37 『閒靜堂集』, 卷4 「答金定夫」, “性理之爭, 將見玄黃, 從古斯文, 未有此事. 聖賢論性, 將求益於身心, 而今人論性, 惟取快於口舌, 喜怒驕吝, 皆由此作, 雖使有得於空言, 其爲傷敗於實德大矣.”

칭탁하지 않는다. 괜한 시빗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유봉은 자신과 다른 심성설을 견지했던 이현익의 행장을 지었고<sup>38</sup>, 낙론계 학자 김원행은 호론계 학자 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의 행장을 지었다.<sup>39</sup> 이런 사례는 호락 간의 학파적·당파적 대립이 강화된 18세기 중반 이후에도 발견된다. 낙론계 학자 홍직필은 호론계 학자 성당(性堂) 정혁신(鄭赫臣, 1719~1793)의 문집에 서문을 지었으며<sup>40</sup>, 낙론계 학자 오희상은 호론계 학자 한계(寒溪) 심건영(沈健永, 1737~1784)의 묘지명을 지었다.<sup>41</sup> 또 홍직필의 사후에 개천(价川)의 유생들이 홍직필을 경현사(景賢祠)에 배향하였는데, 이때 윤봉구도 함께 배향되었다.<sup>42</sup>

위의 예시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홍직필의 사례이다. 홍직필은 19세

- 
- 38 기원 어유봉은 낙론계 학자로서 인간의 인물성동론을 지지하였다. 정암 이현익은 농암 김창협(三淵) 김창협(金昌協, 1651~1708)과 교류하였으나, 심성론에 있어서는 한원진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어유봉은 이현익의 행장을 지었는데, 이 글은 어유봉의 문집인 『기원집(杞園集)』 권26에 「진안현감 이공 행장(鎭安縣監李公行狀)」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 39 미호 김원행은 낙론계 학자 이재의 문인으로 낙론의 학설을 지지하였다. 봉암 채지홍은 수암 권상하의 문인으로서 남당의 심성론을 지지하였다. 김원행은 채지홍의 행장을 지었는데, 이 글은 김원행의 문집인 『미호집(漢湖集)』 권19에 「삼환재 채공 행장(三患齋蔡公行狀)」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 40 이 서문은 『매산집(梅山集)』 권27과 『성당집(性堂集)』 권두에 실려 있다.
- 41 이 묘지명은 『노주집(老洲集)』 권16에 「증호조좌랑 심공 묘지명(贈戶曹佐郎沈公墓誌銘)」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심건영은 윤봉구에게 수학하였으며, 심성설은 한결같이 한원진의 주장을 따랐다. 오희상은 이 글에서 심건영의 지극한 효성과 청렴한 인품, 총명한 자질을 칭찬하였으며, 그가 기존의 잘못된 예설(禮說)을 수정한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심성론에서는, 심건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을 상기하며 “이분이 이치를 말씀하는 것을 들음에 마치 강을 기울이고 바다를 뒤집는 것 같아서 이루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견문이 좁은 데서 온 의혹이 없지는 못하였는데, 당시 내가 무지몽매해서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竊聽其譚理, 若傾秋倒海, 有不可窮也. 然或不無語水之感, 而時駭甚, 恨莫能質所疑也.]”라는 말로 인정과 부정을 함께 나타내었다.
- 42 『梅山集』, 卷53 「年譜」. “【丙辰】价川諸生, 并享于景賢祠. 與屏溪尹先生、三山李公、常窩李公并享.”

기 초·중반에 활약한 낙론계의 종사로, 그 명성이 매우 높았으며, 이재-김원행-박윤원으로 이어지는 낙론의 계통을 이은 학자였다. 호락의 논쟁이 격화된 이후에 활동한 학자이자 19세기 낙론을 대표하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호론의 학자들과 교유한 사례가 발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홍직필의 시선을 빌려, 조선조 후기 호락 제현들의 교유와 친목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홍직필은 지역과 출신, 학파를 불문하고 여러 사람과 널리 교유를 하였다. 그래서 그의 문집에는 심성론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도 여러 편이 실려 있는데, 예컨대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1711~1788)의 아우인 운호(雲湖) 임정주(任靖周, 1727~1796)와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이러한 예 중의 하나이다. 또한, 호론계 학자 정혁신의 외손자인 김박연(金博淵, 1789~?)과의 왕복서도 두 편 발견되는데, 그중 한 편에서는 김박연에게 그의 외조부 정혁신 문집의 서문을 부탁받았던 경위가 서술되어 있으며, 정혁신에 대한 홍직필의 평가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김박연이 문집의 서문을 부탁할 적에 호락의 다름 때문에 망설였던 사실도 서술되어 있는데, 이로써 호락 제현 간의 문서 청탁이 시간이 흐를수록 저어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홍직필은 다른 사람을 통해 김박연이 서문 부탁을 망설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을 느꼈음을 토로한다. 당파 혹은 학파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호락의 학자들은 모두 유학자이기에, 유학자로서 지켜야 할 법도가 같고 그 법도를 지킨 훌륭한 유학자를 존경하는 마음도 같다. 정혁신은 품행과 학문이 고매하여 홍직필이 평소에 존경하는 학자였던지라, 그 문집의 서문을 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는데, 김박연이 호락의 다름을 이유로 이 청탁을 망설였다는 것을 듣고 실망을 느꼈던 것이다.

성당(性堂) 정공(鄭公)의 ‘세상에 은둔하면서도 근심함이 없었던 지조’와 ‘기미를 보고 떠나면서 하루가 다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던 지혜’는 바로 이른바 “명성은 들을 수 있으나 몸은 만날 수 없고, 덕은 우러러 사모할 수 있으나 형체는 볼 수 없다.”<sup>43</sup>라는 것입니다. 병자년(1636, 인조 14)과 정축년(1637)의 호란(胡亂) 이후로 세상의 화란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넘쳐흘렀고 호서(湖西)의 옥사(獄事)에도 도가 지나친 일이 많았으니, 명성이 있는 사람 중에 화를 면한 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뚝이 자립하여 무리 짓지 않고, 호적이 지내며 홀로 거처해서, 너무 드러내지도 않고 너무 숨기지도 않으며, 만난 시절을 편안히 여기고 순리대로 대처하여, 홀륭하게 명철보신(明哲保身)했던 선현들에 견주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던 분으로는, 오직 이 어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경술(經術)과 문장(文章)까지 겸비하였으니, 실로 남쪽 지방의 고매한 선비요, 밝은 조정의 참된 은일지사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어른을 칭송하고 흠모해 마지아니하여, 그 유고를 읽음으로써 정성스러운 마음을 펼 수 있기를 늘 원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형께서 이 어른의 유고를 보여 주시니, 마치 가을바람 속의 나그네가 봉래산(蓬萊山)과 영주산(瀛洲山)의 소식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몹시 기뻐했습니다.

서문(序文)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신 것으로 말하면, 비천한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른을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이 일밖에 없으니, 어찌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응당 병세가 수습되기를 기다려 부탁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까래만 한 큰 붓<sup>44</sup>을 갖지

43 이는 진(晉)나라 때에 주천태수(酒泉太守) 마급(馬岌)이 은사(隱士) 송섬(宋織)을 두고 한 말로, 마급이 주천의 남산에 은거하는 송섬을 찾아가 만나보기를 청하였는데 송섬이 끝까지 거절하고 얼굴을 보이지 않자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명성은 들을 수 있으나 몸은 만날 수 없고, 덕은 우러러 사모할 수 있으나 형체는 볼 수 없구나. 내가 지금에야 선생이 보통 사람들 가운데 용처럼 빼어난 인물임을 알았노라.[名可聞而身不可見, 德可仰而形不可觀, 吾而今而後知先生人中之龍也.]”라고 하였다. 『晉書』, 卷94 「隱逸列傳 宋織」 참조.

못하여 이 어른의 감춰져 있는 깊은 덕과 광채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지난번에 군헌(君憲, 沈宜德의 字)에게 듣건대, 노형이 호락(湖洛)의 논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저에게 서문을 부탁하는 것을 주저하였다고 하니, 노형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까. 세속에서 심성이 같으니 다르니 하는 것은 바로 인자(仁者)와 지자(智者)가 똑같은 도(道)를 달리 보는 것<sup>45</sup>에 불과할 뿐이니, 어찌 사(邪)와 정(正)이 다르고 선(善)과 악(惡)이 다른 경우와 똑같겠습니까. 다투려는 마음과 이기려는 기세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데에만 급급한 자를 볼 때면 답답한 심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원(杞園)은 정암(正菴)의 지문(誌文)을 지었고 미호(溪湖)는 봉암(鳳巖)의 덕행을 기술하였으니, 이때에 논의가 서로 어긋난다고 하여 구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 어른처럼 우뚝하게 자립하여 언어와 문장을 초월해 계신 분은 어떠하겠습니까.<sup>46</sup>

홍직필은 어유봉과 김원행의 사례를 들어, 심성론의 견해가 달라도 서로를 아끼고 존경했던 유풍을 언급한다. 호락논쟁의 쟁점이 중요하지 않은

44 훌륭한 글재주를 비유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왕순(王詢)이 어떤 사람이 서까래만한 큰 붓을 건네주는 꿈을 꾸고는 “앞으로 내가 솜씨를 크게 발휘할 일이 있을 모양이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얼마 뒤에 황제가 죽어 애책문과 시의(諡議) 등을 모두 왕순이 짓게 되었다. 『晉書』, 卷65 「王導列傳 王珣」 참조.

45 똑같은 도를 두고서 인자는 인(仁)이라고 하고 지자는 지(智)라고 함을 이른다. 『周易』 「繫辭上傳」 참조.

46 『梅山集』, 卷16 「答金維誠」. “性堂鄭公遜世無悶之操, 見幾不俟之智, 卽所云名可聞而身不可見, 德可仰而形不可覩者也. 丙丁以還, 世禍滔天而湖嶽多濫, 名下幾無免者. 其能魁然無徒, 廓然獨居, 不蔽不昧, 安時處順, 無愧乎明哲煌煌者, 惟有斯翁耳. 濟之以經術文章, 寔爲南州之高士, 熙朝之眞逸也. 區區者自童丱時, 誦慕不已, 每擬讀其遺唾, 用攄心香, 而不可得. 伏荷垂示, 愧若秋風客之聞蓬瀛信息也. 至若弁卷之托, 非賤分之所敢將, 而爲斯翁役者, 祇有斯事, 詎容辭爲? 當侯病思收攝, 圖所以聞命, 而恨乏如椽巨筆, 闡發潛德幽光也. 向聞諸君憲, 老兄以洛湖議論之搆貳, 越趨於問序, 以老兄而亦爲云爾耶? 世俗所云心性同異, 卽不過仁智之異見耳, 豈若邪正淑慝之不倫乎? 每見以爭心勝氣, 務自主張者, 則卮劑其悶絕也. 杞園述正菴之誌, 溪湖狀鳳巖之德, 何嘗拘於講論之參差乎? 況如斯翁卓然自立, 存乎言語文字之外者哉?”

것은 아니지만, 그 쟁점은 어디까지나 주자학의 범주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호론과 낙론은 유학과 불교, 혹은 주자학과 양명학처럼 다른 것이 아니다. 주자학자들에게 불교와 유학은 그릇됨과 올바름, 악함과 선함으로 구분되지만, 호론과 낙론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 둘 다 '선하고 올바른' 이론, 즉 주자학에 속하기 때문이다. 낙론계 학자들이 한원진의 이론을 비판할 때 대체로 “주자의 언설을 너무 지나치게 분석하다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하는 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홍직필보다 약간 연상인 낙론계 학자 오희상은 심성론에서 홍직필과 견해가 완전히 일치하지만, 강직한 성품으로 인하여 교유하는 사우가 많지는 않았다. 한원진의 학술에 대한 비평도 홍직필보다 냉엄한 편인데, 오희상 역시 한원진의 학술을 무조건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남당의 실제 견해의 착오는 바로 근원적인 부분에 있네. 그러나 세세한 절목(節目) 중에는 좋은 것도 많으니, 어찌 붓질 한 번으로 결단해서 모두 버릴 수 있겠는가. 주자가 일찍이 말씀하기를 “차라리 간략할지언정 자세히 하지 말고, 차라리 소략할지언정 치밀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어른의 잘못은 매번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고 치밀하게 하여, 행여 말을 다 하지 못할까 염려해서, 다른 사람들이 뒤이어서 보충할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은 데에 있네. [...] 그러나 선배를 높이고 경외하는 방도로는 이렇게 옳은 것은 옳다고 하는 도리가 매우 좋네. 의리의 시시비비에 관계된 경우에는 분명하게 변론하지 않을 수 없으나, 진실로 이로 인해 경솔하게 선배를 꾸짖고 배척해서 옳지 못한 짓을 범해서는 안 되네.<sup>47</sup>

47 『老洲集』, 卷4 「答士遠」. “此老實見之差, 政在於源頭, 而節目之間, 亦多有好處, 豈可一筆勾斷而盡棄之耶? 朱子嘗曰, 寧畧毋詳, 寧疎毋密. 此老之失, 每每過於詳密, 惟恐言之不盡, 殆無餘地可使人繼也 [...] 然尊畏前輩, 此理甚好. 至係義理得失, 雖不得不明辨, 固不可因此而輕加呵斥, 以犯不韙也.”

호락의 시비가 만일 정치적 권력 다툼이었다면, 낙론의 대표 학자인 오희상과 홍직필이 호론의 대표 학자인 한원진을 이처럼 비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한원진이나 윤봉구와 같은 호론계 학자들을 선배로서 존중하였고, 같은 유학자로서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찬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호론의 선현에 대한 홍직필의 품평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아래에는 호론계 학자에 대한 홍직필의 품평 사례를 모으되, 학술에 대한 비평보다는 인품과 덕행에 관한 비평을 위주로 수집·나열하였다.

수암은 근본을 돈독히 하고 실천하였고, 진실함을 쌓고 힘쓰기를 오래하여 우암의 서업(緒業)을 크게 이어 호학(湖學)의 성대함을 도와서 계도하였습니다. 병계·외암·남당 등의 유학자들이 모두 그 문하에서 나와서 화양(華陽, 송시열)의 풍교와 공렬을 같이 천명(闡明)하였습니다.<sup>48</sup>

남당이 삼주(三洲)에서 농암을 배알하였는데 농암이 황강(黃江, 권상하)의 소식을 물으며 말하기를, “근래에 무슨 책을 읽는가?”라고 하였다. 남당이 말하기를, “『중용』입니다.”라고 하니 농암이 말하기를, “알고서 읽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남당이 돌아가서 수암에게 이를 고하자 수암이 웃으며 말하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말이 혼후하여 모나지 않으니 또한 수암의 넓은 덕량을 볼 수 있다.<sup>49</sup>

인용한 주자의 말은 『주자대전』 권62 「답장원덕(答張元德)」에 보인다.

48 『梅山集』, 卷19 「答林來卿」. “遂菴敦本踏實, 眞積力久, 丕續尤翁之緒, 佑啓湖學之盛. 屏溪、巍巖、南塘群儒咸出於其門, 永闡華陽之風烈.”

49 『梅山集』, 卷52 「雜錄」. “南塘拜農巖於三洲, 農巖問黃江信息而曰, 近讀何書? 曰中庸. 曰知而讀之乎? 南塘歸告遂翁, 遂翁笑曰, 不知故讀之. 其言渾厚, 不露圭角, 亦可見德量之宏也.” 「잡록(雜錄)」에서는 호론계 대표적 학자인 권상하·한원진·윤봉구 및 그 문인들에 관한 홍직필의 평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한원진과 김창협이 교유한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홍직필의 평에서 어떠한 폄훼의 말도 찾아볼 수 없다는 데에

수암은 화양(송시열)의 의발을 이어받았으므로 화양의 풍도를 듣고 일어난 자들이 모두 수암의 문하로 들어왔다. 또 수암은 두터운 덕과 순수한 행실이 선비들을 감동시켜 성대하게 인재를 많이 길러내었으니 진실로 근세의 유학자 중에 있지 않았던 바이다. 한남당, 이외암, 채봉암, 이화암(李華巖, 李頤根), 현관봉(玄冠峯, 玄尙璧), 윤천서(尹泉西, 尹焜), 최매봉(崔梅峯, 崔徵厚), 우고산(禹孤山, 禹世一)이 이른바 ‘팔학사(八學士)’인데, 모두 호서에 거주하는 자들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 밖에 윤병계, 성추담(成秋潭, 成萬徵)과 같은 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병계의 문도에는 또 ‘오학사(五學士)’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김밀암(金密菴, 金砥行), 박입암(朴立菴, 朴俊欽), 송강촌(宋綱村, 宋明輝), 김규오(金奎五), 김종명(金宗溟) 공이다.<sup>50</sup>

남당은 기상이 매우 좋은 데에다 웅변까지 검비하여 충분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하였다. 노초(老樵) 이공(李公, 李淞)은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보건대 남당은 가슴 속에 여러 책을 보관하고 있어서 언사와 문장이 또한 잘못된 이론을 이를 법하다.”라고 하였다. 이이장(李彝章)은 암행어사로서 잠행하다가 남당의 처소에 머물렀는데 그 언론을 듣고는 돌아와 자신의 당류(黨類)에게 말하기를, “한 아무개는 학문이 있는 제갈량(諸葛亮)이다.”라고 하였다.<sup>51</sup>

정좌와(靜坐窩) 심조(沈潮) 공은 강문(江門, 권상하의 문하)의 후진으로서 남당에게 학업을 끝마쳐 항상 남당을 돈독하게 신봉하였다. “남당의 문인

주목해야 할 것이다.

- 50 『梅山集』, 卷52 「雜錄」. “遂菴承華陽衣鉢, 故聞華陽之風而作者, 皆登黃江之門, 且遂菴惇德純行, 孚感髦譽, 彬彬多成材, 寔近世儒門之所未有也. 有若韓南塘·李巍巖·蔡鳳巖·李華巖·玄冠峯·尹泉西·崔梅峯·禹孤山, 卽所云八學士, 而皆以居湖西者而言也. 外此如尹屏溪·成秋潭諸賢不與焉. 屏溪門徒, 亦有五學士之稱, 金密菴砥行·朴立菴俊欽·宋綱村明輝·金奎五·金宗溟諸公是已.”
- 51 『梅山集』, 卷52 「雜錄」. “南塘氣象甚好, 濟以雄辯, 有足動人. 老樵李公嘗云, 吾見韓公曾藏羣書, 言語文字, 亦可以遂非. 李彝章以繡衣潛行, 止宿南塘所, 聽其言論, 歸語其黨類曰, 韓某有學問底諸葛亮云.”

중에는 한전(寒泉, 이재)의 문인 박성원(朴聖源)과 양응수(楊應秀)만 한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심공이 말하기를, “송능상(宋能相), 김근행(金謹行) 등의 인물이 어찌 그들만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심공은 평소에 남을 이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니, 이 말 또한 이기기를 힘쓰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sup>52</sup>

병계가 어려서 학당에 들어갔을 적에 입이 둔하여 구두를 떼는 데에 능통하지 못하였다. 이에 훈장이 떠나보내려고 하니 병계가 울면서 잠을 자지 않았다. 그러자 훈장이 그 뜻에 감동하여 다시 가르쳐주었고 병계 또한 노력하기를 그치지 않아서 결국 성취를 거두는 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노둔함으로 도를 얻은 자<sup>53</sup>이다.<sup>54</sup>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락논쟁이 현황의 지경이 되었던 19세기에 낙론의 종사 홍직필은 호론의 선배 학자들을 향해 존경과 흠모의 시선을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물론 홍직필이라는 한 개인의 취향이나 성품에 의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홍직필이 당시에 지녔던 영향력을 떠올릴 때 이를 한 개인의 돌출적 행위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이 당시 학술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조명됨으로써 조선조 후기 호론과 낙론의 관계 연구에 새로운 관점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52 『梅山集』, 卷52 「雜錄」. “靜坐窩沈公潮以江門晚進, 卒業於南塘, 常篤信南塘. 有言南塘門人無如泉門之朴聖源·楊應秀者, 沈公曰, 宋能相, 金謹行諸人, 何渠不若乎? 沈公素非爭長競短者, 其言亦非出於務勝也.”

53 이 말은 정호(程顥)가 증자(曾子)를 두고 한 말이다. 『近思錄』 卷2 「爲學」 편 참조.

54 『梅山集』, 卷52 「雜錄」. “屏溪幼而入學, 口鈍不能通句讀. 塾師欲辭去, 屏溪涕泣不寢. 塾師感其意復施教, 屏溪亦努力不已, 竟底有成, 眞以魯得之者也.”

## V. 맺음말

---

호락논쟁은 높은 수준의 형이상학적 논쟁이었고, 중대한 철학적 논제를 다룬 학술논쟁이었다. 그런데도 기존의 연구에서 호락논쟁은 논론의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투쟁으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물론, 호락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학파적 대립이 당파적 대립으로 변질된 양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파적 대립은 호락논쟁의 전모 중 일부에 불과하다. 호락논쟁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호락 제현의 관계를 대립 일변도로 파악하거나 양자 간의 치열한 대립 양상만을 주목하는 연구는 호락논쟁을 ‘철학적 논쟁의 탈을 쓴 정치적 권력투쟁’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IV에서 살펴보았듯이, 호락 제현이 대립했던 것은 심성론의 영역에 한정된다. 호락이 다투는 이론은 심성론 중에서도 매우 첨예화된 수준의 심성론이다. 현대의 서구화된 인간론과 비교하면, 호론과 낙론 간의 거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호락논쟁의 철학적 의의와 사상사적 가치는 이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집적된 뒤에야 제대로 가늠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호락논쟁을 ‘학술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치적·당파적 대립’으로 규정해버린다면 호락논쟁의 연구에 동력을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호락논쟁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호락논쟁에 덧씌워진 선입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 해소를 위하여 지금까지 조명되지 못했던 호락 제현 간의 교유 사례를 제공하였다. 새로운 사례의 발굴이 호락논쟁의 연구를 촉구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鼓山集』, 『近思錄集解』, 『南塘集』, 『老洲集』, 『農巖集』, 『大學或問』, 『陶菴集』, 『梅山集』, 『湊湖集』, 『屏溪集』, 『四書集註』, 『三淵集』, 『宋子大全』, 『巍巖遺稿』, 『芸窓集』, 『栗谷全書』, 『二程遺書』, 『正菴集』, 『周易本義』, 『朱子大全』, 『朱子語類』, 『泉門俟百錄』, 『間靜堂集』.

### 2. 단행본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파주: 돌베개, 2003.  
도오루, 다카하시(저), 조남호(역), 『조선의 유학』. 서울: 소나무, 1999.  
문석윤, 『호락논쟁: 형성과 전개』. 고양: 동과서, 2006.  
배중호, 『한국유학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4.  
유명중, 『조선후기 성리학』. 대구: 以文出版社, 1988.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성남: 신구문화사, 1998.  
이병도, 『한국유학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조성산,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파주: 지식산업사, 2007.  
현상윤, 『朝鮮 儒學史』. 서울: 민중서관, 1977.

### 3. 논문

노대환,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 『한국문화』 42집, 2008, 63~85쪽.  
신상후, 「조선조 洛學의 未發心論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이경구, 「湖洛論爭을 통해 본 철학논쟁의 사회정치적 의미」. 『한국사상사학』 26집, 2006, 201~232쪽.

### 4. 사이트

스탠포드 철학용어 사전(<https://plato.stanford.edu>).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

## 국문초록

호락논쟁은 충청 기반의 호론계(湖論系) 학자들과 서울 및 근기(近畿) 기반의 낙론계(洛論系) 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다. 이 논쟁은 '사단칠정논쟁'과 더불어 조선조 성리학(性理學)의 2대 논쟁으로 꼽힌다. 조선조에서 축적된, 호락논쟁의 학술적 성과가 사단칠정논쟁 못지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락논쟁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사칠논쟁에 관한 연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호락논쟁이 사칠논쟁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호락논쟁을 정치적·당파적 대립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는 선입견이라고 본다. 물론, 호락논쟁을 '당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된 순수 학술논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호락논쟁이 사칠논쟁만큼이나 철학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룬 논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오히려 논쟁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의 깊이나 넓이로 보았을 때, 호락논쟁은 사칠논쟁보다 학술적으로 더욱 진전되고 심화된 논쟁이었다.

하지만, 호락논쟁의 이러한 가치는 이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집적된 뒤에야 밝혀질 수 있다. 그리고 호락논쟁에 관한 연구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다룬 한가한 논쟁', '철학적 논쟁의 탈을 쓴, 정치적 권력투쟁'이라는 식의 선입견을 잠시 놓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호락논쟁을 대립 일변도로 파악하는 견해는 이러한 선입견을 형성 혹은 강화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호락 학자들 간의 교류 양상을, 갈등이나 친목 한쪽에 치우침 없이 양면에서 살펴보는 일은, 이러한 선입견의 시비를 검토하고 호락논쟁을 다시 평가하려는 새로운 시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호락 학자들 간의 교류 양상을 조명하되,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던 친목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 검토에 앞서, 호락논쟁의 철학적 의의를 분석함으로써 이 논쟁이 지닌 무게와 심각성을 가늠해볼 것이다.

호락논쟁의 철학적 의의를 먼저 따져보는 이유는 본고의 최종 목표가 호락 논쟁에 관한 정당한 평가와 적실한 분석의 시급성을 알리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호락논쟁을 ‘철학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논쟁’으로 이해하거나, 호락 간 철학적 견해의 대립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대립인데도 당과성을 지키느라 고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본고에서 아무리 호락 간 교유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한들 이러한 설득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I에서는 먼저 호락논쟁의 핵심쟁점과 그 철학적 의의를 대략 서술할 것이다. 이어지는 III에서는 호락 간 대립이 강화되었던 경위를 살펴보고, IV에서는 이러한 대립에서도 발견되는, 호락 학자들 간의 친목과 교유의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례의 발굴과 소개가 호락논쟁의 연구를 촉구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투고일 2023. 1. 30.

심사일 2023. 2. 7.

게재 확정일 2023. 2. 15.

주제어(keywords) 호락논쟁(Horak Debate), 호론(School of the Ho), 낙론(School of the Rak), 최석(Choi Seok), 한원진(Han Won-jin), 이재(Lee Jae), 홍직필(Hong Jik-pil)

## Abstract

Conflicts and Correspondence:  
New Insight into the Horak Debate in the Late Joseon Society  
Shin, Sang-who

The Horak debate occurred among scholars from the Ho School located in Chungcheong Province and the Rak School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Researchers of Korean philosophy consider it to be one of the two most important debates in Joseon neo-Confucianism, along with the Four-Seven Debate. One reason why the Horak Debate has not received the attention that the Four-Seven Debate has is the preconceived notion that the Horak Debate was driven by political and partisan conflicts. We cannot categorize the Horak Debate as a “purely academic debate without partisan interests,” but it is clear that the Horak Debate addressed issues of philosophical importance equal to the Four-Seven Debate. The depth and breadth of the topics covered in the debate suggest that the Horak Debate was more academically advanced and sophisticated than the Four-Seven Debate.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e Horak debate can only be appreciated once a sufficient amount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do so, it will be necessary to set aside some of the preconceived notions that it was an idle debate on issues of insignificant academic ideas, or that it was a political power conflict disguised as a philosophical debate. In my view, envisioning the Horak controversy merely as a binary opposition reinforces these preconceptions. Conversely, examining the various forms of interactions among the Horak scholars from both sides without favoring conflict or friendship can provide a basis for a new attempt to challenge these preconceptions and reassess the significance of the debate. To provide such a foundation,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aspects of friendship among the Horak scholars and focus on cases that have received less attention. Prior to examining these cases, I will analyze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the Horak controversy to reassess the weight and seriousness of the debate.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the Horak controversy are discussed first, as the ultimate goal of the paper is to emphasize the need for a proper re-evaluation of the debate. To do

so, it will be necessary to set aside some of the preconceived notions that it was an idle debate on issues of insignificant academic ideas, or that it was a political power conflict disguised as a philosophical debate. Therefore, in Chapter 2, I first outline the core issues of the Horak controversy and its philosophical significance. Chapter 3 examines the circumstances that led to its intensification, and Chapter 4 presents examples of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among the Horak scholars who participated in this conflict. Ultimately, this article aims to discover and present new examples that will stimulate further research on the Horak debate.

